



우리 나라에는 그 어디에나 명승지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백두산은 아름답고 신비한 천지까지 안고있어 단연 세계의 명산으로 그 이름이 높다.

웅장하고 장엄한 령봉들에 둘러싸여있는 백두산천지는 넓고 깊으며 신비하고 천변만화할뿐아니라 우아하고 아름다운것으로 하여 오래전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우리 선조들은 먼 옛날부터 백두산천지를 큰못이라하는 뜻과 신비로움을 상징하여 《대지》, 《대택》, 《천상수》, 《릉담》, 《릉궁담》 등으로 불렀다.

백두산천지는 화산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화구호이다.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가 밝혀낸데 의하면 천지바닥지형은 단면상으로 볼 때 그 방향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 세계의 명승 백두산천지

이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밑이 우묵한 점시형태이다.

둘레가 수십리가 넘으며 바닥지형이 거대한 점시모양을 이룬 천지에는 방대한량의 물이 있다.

천지의 물은 매우 맑다. 천지의 맑은 물에 주위의 령봉들과 하늘이 비끼여 신비롭기 그지없다. 이 지형에 익숙된 칼새들까지도 천지물속을 하늘로 알고 내리쬘히는 때가 적지 않다.

천지물은 위생학적견지에서 볼 때에도 대단히 좋다. 백두령봉의 통선과 분화구벽 그리고 천지호반의 알질과 토양조건, 식물피복에 의하여 대기강수가 충분히려 파괴고 정화된다.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에

서 조사한 자료를 놓고볼 때 천지물은 위생학적으로 아주 깨끗한 물이라는것을 알 수 있다.

천지의 겨울풍경은 백두산에서만 볼수 있는 장관이다.

천지는 9월 하순부터 얼기 시작하여 12월 상순에 완전히 얼어붙는다. 천지가 얼기 시작할 때 호안에 는 두터운 얼음판들이 쌓이고 쌓이며 여기에 물보라까지 뿌려져 얼어붙은 모양은 천태만상을 이루고 절벽과 릉집한 호안 등에 얼음폭포와 고드름이 드리워져 하나의 얼음자연박물관을 이룬다.

천지가 완전히 얼어붙은 다음 얼음면에 들어서면 여

름철의 물속보다 더 깊이 들여다 보인다. 이것은 물론과 달리 얼음면이 바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것과 관련된다.

천지얼음면에는 겨울기간에 많은 량의 눈이 내린다. 겨울기간 끊임없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데 이때 눈보라가 타래쳐오르기도 하고 분화구안의 눈을 하루사이에 분화구밖으로 날려보내기도 한다.

겨울기간 한달에 하루이틀 정도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날도 있다. 이때 하늘에 구름이 차있을 때에는 햇빛이 구름짍으로 이따금 비쳐들어 천지순환우에 국부조명을 펼치기도 하고 하얀 눈안개가 낄 때에는 봉우리처럼

까지 하루종일 떠를 두르고 머물기도 한다.

안개도 구름도 없고 바람조차 불지 않는 날이면 백두령봉의 장엄한 모습과 천지호반, 천지의 설경이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안겨온다.

천지의 얼음풀리기는 5월 하순경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6월중순이면 끝난다. 어떤 해에는 6월말에야 끝난다.

이 시기 얼음들이 풀리면서 악기의 줄을 튕기는것과 같은 신기한 소리까지 난다. 얼음이 풀리면 천지의 맑은 물이 또다시 여러가지 조화를 부리며 신비경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백두산천지는 우리 나라의 자랑일뿐아니라 세상사람들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세계의 명승이다.

본사기자

## 2014년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세계 신 기록 수립 금, 은 메달 정취

얼마전 타이에서 진행된 2014년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공화국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다.

청소년급 여자 44kg급경기에 출전한 리성금선수는 순간계기와 빠른 추기 등을 잘 결합하여 추켜올리기에서 93kg을 보기 좋게 성공시킴으로써 세계신기록을 수립하였다.

끌어올리기에서도 66kg을 들어올려 리성금선수는 종합 1등으로 3개의 금메달

을 쟁취하였다.

또한 림은심선수는 청년 여자 58kg급경기에서 1등을 하여 금메달 3개를 획득하였다.

경기에 출전한 그는 끌어올리기에서 93kg, 추켜올리기에서 113kg을 성공시켜 세부종목과 종합 성적에서 다같이 우승하였다.

한편 리현화선수는 청소년급 여자 44kg급경기 추켜올리기와 끌어올리기에서 2위와 3위를 하고 중

합 2등을, 김영근선수는 청소년급 남자 50kg급경기 추켜올리기에서 2위를 하고 종합 3등을, 박정주선수는 청소년급 남자 56kg급경기 끌어올리기와 추켜올리기에서 각각 3위를 하고 종합 3등을 하였다.

청년여자 63kg급경기에서 김효심선수는 끌어올리기 2위, 추켜올리기 2위로 종합 2등을 하여 3개의 은메달을 받았다.

본사기자

## 《김치맛 참 좋구만!》 (3) 글 김정희, 그림 김윤일

령감이 하는 행동을 어이없이 바라보던 리씨는 당장에 욕구멍으로 섭섭한 말이 튀어나오는것을 가까스로 삼키었다.

(여보 령감, 꿀물도 늘 먹으면 썩 법이랍니다. 밥그릇도 남의 밥그릇이 더 커보이고 색시도 남의 색시가 더 고와보인다는 말이 바로 령감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 갈구만요.)

이날부터 최령감은 제 집 김치를 남의 집 김치로 알고 하루가 멀다하게 김치팡이네 집 김치를 얻어오라고 성가시게 굴었으며 그럴적마다 리씨는 이웃집에 가서 시간을 끌다가 제 집 김치를 모양새를 달리하여 상에 올려곤 하였다.

그런 속에서 해는 바뀌어 정월대보름날이 왔다. 정월대보름명절이자 최령감의 생일날이어서 해마다 이날이 오면 리씨는 이웃들을 청하여 명절놀이도 하고 성의

껏 준비한 음식도 나누어 즐겁게 보내곤 하였다.

이날도 리씨는 여느해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명절음식과 생일음식들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이웃들을 청하였다. 방 한가운데 그득하게 차려놓은 상우에는 오희떡, 파죽 등이 올라있었으며 음식그릇사이에는 먹음직스러운 김치그릇이 놓여 구미를 돋우고있었다.

이웃들이 모두 방에 들어와 상에 빙 둘러앉자 최령감은 상우의 음식들을 한번씩 훑어보더니 부엌에 있 는 안해에게 큰 소리로 청하였다.

《여보 마누라, 오늘같은 날에야 뉘니뉘니 해도 김치

하겠소. 쫌쫌, 어서 빨리 갖다 오우.》

《별써 그 집에서 령감 생일이라고 안주인이 김치를 가지고왔어요. 상우에 놓인 김치가 바로 그 김치예요.》

《음, 그래. 그럼 됐구만. 자 어서들 튀기요.》

그제서야 최령감은 흠죽한듯 머리를 끄떡이더니 김치그릇을 먹기 편리하도록 손님들앞에 놓아주며 말하였다.

《자, 모두들 우선 이 김치맛부터 좀 보우다. 이 김치를 한술거리 입에 넣으면 허가 저절로 이사이를 추듯 돌아가는게 참 별맛이되다.》

최령감은 자기 별명을 뉘 집 아이이름 부르듯 하고 리씨는 아님보살하며 그럴듯하게 대답하니 어안이 벙벙해진 이웃들은 최령감만 빼지 쳐다보았다. 저 령감이 어떻게 되어 사람들앞에서

오늘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른 나라 귀빈이 특정도시를 방문하였을 때 시장이 행운의 열쇠를 증정하여 우의를 표시하는것은 하나의 관례로 되어있다.

행운의 열쇠를 증정하는것은 서양에서 시작된 풍습으로서 그 유래는 열쇠의 상징성과 밀접히 관련되어있다.

열쇠는 자물쇠를 열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이다. 열쇠와 자물쇠는 재산을 무사히 보관하고 아울러 부를 자랑해보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로마신화에 나오는 문의신 야누스는 전쟁시기에는 문장을 열어두고 평상시에

는 닫아두었다. 로마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신들의 이름을 부를 때 먼저 야누스의 이름을 불렀다.

야누스의 열쇠는 신들의 세계와 인간세계사이의 문을 열수 있는 힘의 열쇠였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열쇠를 행운을 만나는 기회의 상징물로 하고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려니》라고 한 예수의 말에 따라 열쇠는 사도 베드로(예수의 12제자중의 제1인자)와 그 후계자인 로마교황의 상징으로 되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의 문을 거쳐야 하며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하다는것이다. 행운의 열쇠는 이로부터 유래된것이다.

본사기자

## 민족의 자랑-평양민속공원을 찾아서

## 현화사비

평양민속공원에 만들어놓은 고려시기 유적들은 주로 당시 국교로서 적극 장려된 불교와 관련된 유적들이다. 당시 불교는 하나의 사조로서 동아시아에 널리 퍼져있었다.

고려국가를 세운 왕건은 봉건통치에 유리한 불교의 영향을 특별히 중요시하면서 불교를 적극 장려하였으며 도처에 큰 규모의 절들을 많이 건설하게 하였다.

당시 인민들과 조각가들은 이러한 불교와 관련된 사찰들을 건설하면서 생활에 대한 자기들의 소박한 견해를 담았으며 오랜 경험을 통하여 축적되고 세련된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민족의 우수한 재보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렇듯 우리 민족의 소박한 생활감정과 정서, 우수한 재능이 현화사비와 같은 고려유적들에 잘 반영되어 있다.

평양민속공원에 실물과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놓은 현화사비는 원래 개성시 장봉군 월교리 령추산 남쪽기슭의 현화사터에 있던 비의 모형이다.

원래 현화사비는 1018년에 세운 현화사의 래력을 전하기 위해 1021년에 세운것이다.

비는 거부기받침과 비몸, 룡틀임비머리로 이루어졌는데 거부기의 받침과 비머리는 화강암으로 만들었고 비

몸은 대리석을 다듬어 만들었다.

배와 다리를 땅에 붙이고 아가리를 꼭 다문채 움추린 모습을 처든 거부기받침의 길이는 2.16m, 너비는 2.65m, 높이는 90cm이다. 거부기의

부릅뜬 눈, 아가리, 귀뒤로 뻗친 지느러미, 발통 등이 생동하게 형상되고 거부기 잔등무늬는 한줄로 간결하게 표현되었다.

높이가 2.6m인 비몸에는 앞뒤에 2 400여자의 글자가 새겨져있고 양측면에는 오르내리는 두마리의 룡이 부각되어 있으며 정면 윗부분에는 비의 이름과 해와 달을

상징하는 금까마귀와 옥토끼가 새겨져있다. 구름속에서 서로 엉켜돌아가는 룡조각으로 된 비머리의 높이는 60cm이다.

현화사비가 널리 알려지게 된것은 비가 크고 그 조각장식이 우수하기때문이다.

현화사비는 종래의 전통적인 수법을 벗어나 비몸에는 화려한 조각장식을 한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였을뿐아니라 거기에 새긴 장식조각의 처리가 대단히 훌륭하여 고려비석장식조각의 특이한 형식을 대표하는 우수한 작품의 하나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곽영숙



공화국의 자랑많은 천연기념물중에는 그 과학적 가치와 관상적의의뿐아니라 조선민족의 불굴의 애국정신을 상징하는 유명한 식물도 있다.

그것이 함경남도 금호지구 호단포리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423호 1밤나무이다.

조선을 강점한후 일제는 중세기적공포정치로 우리 나라를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어버렸다.

일제의 악랄한 탄압과 학탈정치를 그대로 감수할수 없었던 우리 겨레는 드디어 1919년 3월 1일 천진폭적인 반일봉기를 일으켰다. 이날 2천만 조선인민은 어른, 아이, 남자, 여자 할것없이 모두 거리에 떨쳐나와 《일

애국정신을 상징하는

## 3. 1밤나무

에국정신을 상징하는

에국정신을 상징하는

에국정신을 상징하는

에국정신을 상징하는

본사기자

## 훌륭한 뇌훈련수단인 신문

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고력과 통제와

행동, 전달, 기억 등 고급한 정신적작용을 담당하고있는 전두엽이며 이 부위가 쇠약해져 뇌가 화된다.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감정이나 행동을 억제하기 힘들고 쉽게 화를 내는 현상들은 모두 전두엽의 기능저하

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막자면 뇌를 꾸준히 단련시켜야 한다.

물론 교전작품들이나 명작으로도 이와 같은 훈련을 할수 있지만 신문은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뇌를 훈련시키는데 좋다고 한다.

더욱이 신문은 문장뿐아니라 수자와 도표 등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기때문에 다채로운 훈련을 할수 있다.

바로 그래서 큰 마을이 청춘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마을씨와 김치순세를 가지고있는 자기 안해를 몰라보고 오 늘은 이처럼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것이 아닌가.

이런 일이 있는 후부터 최령감은 정신을 번쩍 차려 썩 다른 사람으로 되었다.

그처럼 자기를 위해주는 안해의 진정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며 말 한마디를 하여도 그의 수고를 해하려 힘이

필만 한 마듯한 말을 몰라했으며 김치그릇을 마주할 때마다 완하게 웃으며 우리 김치맛이 제일이라고 말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그리하여 최령감에게 붙었던 김치팡이라는 별명은 옛은듯이 사라지고 부부간의 정은 나날이 두터워져 이웃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자아내게 되었다.

(끝)



치를 담긴 안주인에게 김치를 몹시 좋아하는 이 최령감이 절을 드리니 받아주시 우.》

최령감의 말이 채 끝나기

저마끔 웃어대는 소리에 귀가 멍멍해진 최령감은 몸을 일으켜세우며 앞을 보았다. 그런데 이런 변이라구나, 천만뜻밖에도 눈앞에는 자기의

최령감의 말이 채 끝나기